

“순창 음식문화거리 조성하자” 스마트팜 시스템 딸기 생산 본격화

신정이 순창군의원, 지역 음식문화 활용 경제 활성화 · 관광자원 발전 방안 제안

순창군의원 신정이 의원은 지난 13일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순창의 맛과 멋을 담은 음식문화 거리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순창만의 고유한 음식문화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방안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향토음식은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만족도 향상, 재방문 유도 및 지역문화 홍보 등의 경제적 · 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순창의 장류는 독창성과 다양성으로 음식 관광의 기대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문화거리가 단순한 관광 명소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벚꽃길 푸드 트럭 거리와 옛 추억의 음식거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순창의 맛과 멋을 담은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신정이 의원

의 분석 결과를 인용, 음식이 순창군 내 관광 관련 검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음식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체계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우리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음식 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를 활용해 음식과 관광이 결합된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의 유 · 무형 자원을 패키지로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신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의 분석 결과를 인용, 음식이 순창군 내 관광 관련 검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점을 들어 음식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맞춘 체계적인 홍보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우리 군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음식 관광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이를 활용해 음식과 관광이 결합된 독창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지역의 유 · 무형 자원을 패키지로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친 후, 신 의원은 한국관광데이터랩

순창군, 남계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준공

주민 안전 · 환경 개선 기대

순창군은 지난 12일 순창읍 남계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준공식을 열고, 생활인프라 및 환경 개선의 성과를 축하했다.

사정 1마을 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염기남 순창부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위원장, 이흥주 추진위원장, 편동현 한국농어촌공사 순창군지사장, 기관단체장 및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남계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3억원이 투입돼, 주



거와 위생, 안전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개선을 이뤄냈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2개소(금덕, 사정1), 집수리 및 지붕개량 131호, 담장정비 59호 1,494m, 마을내 소규모주차장 5개소, 안전사각지대 CCTV설치 4개소, 행복쉼터조성 1개소, 기존담장 도색 등이 있다.

또한, 사업 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진지 견학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영일 군수가 농촌 지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온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여기에 군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꾸준히 도전한 결과로 이어졌다.

그 성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5개 마을의 생활기반 개선을 위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팔덕 백암마을, 적성 임동마을, 유등 외이마을, 풍산 대가마을, 금과 매우마을 등이 그 대상이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남계지구 새뜰마을 사업 준공을 위해 힘써주신 추진위원장과 여러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남계지구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여건을 보장하고 주민공동체 의식을 높여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살기 좋은 남계지구 마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치유농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연과 농업 활동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도모하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유농업은 농업적 자원(농작물, 농촌 환경, 동물 등)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텃밭 가꾸기, 수확 체험, 동물 돌보기 등 농업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농촌 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교감을 통해 치유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이 치유농업을 경험하고 자연 속에서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6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운봉읍(정기예 홍삼양장 만들기, 운향농원 누룽지 까니페 만들기, 들꽃다물 블랙커런트 청 만들기, 아미팜 사

과파기 체험) △주천면(춘향농원 수세미 스킨만들기, 움치마을 떡과자 만들기) 등의, 6개소의 치유농업 체험장을 운영 중이다. 체험비 3만원으로 모든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최근 치유농업은 체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농장별 맞춤형 스마트플레이스 연계 상품 판매를 통해 치유농가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비자가 치유농가의 상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도 스마트 플레이스 또는 노농법 플랫폼에서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심민 임실군수, ICT 융복합 기술 활용 삼계면 농가 현장 방문

임실군이 첨단 농업기술인 스마트팜 시스템을 통한 딸기 생산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군은 삼계면에 위치한 스마트팜 또한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재배 온실을 운영 중인 가운데 12월부터 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곳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스마트팜 구축을 완료, 딸기를 식재해 생산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심 민 군수는 지난 12일 삼계면 소재 딸기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첨단 재배시설을 둘러보고 첨단 농업 기술이 지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다.

심 군수는 현장에 함께한 딸기 생산 농가들을 격려하고 시설재배 농가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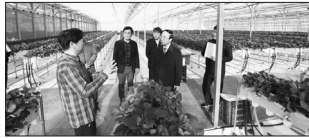
이번 현장 방문은 첨단 농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이 딸기 재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역 농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계면 스마트 온실을 운영 중인 청년 농업인은 2020년 귀농해 임실군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농장에서 경험을 쌓은 후 스마트 온실에서 딸기 재배를 하고 있다.

이 청년 농업인은 2024년 임실 딸기 공선회 우수 회원으로 뽑히는 등 지역 정착의 우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스마트팜은 농업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요소이며, 딸기 스마트팜이 지역 농가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스마트 농업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새내기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특별휴가 신설

남원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계발 및 복리 후생 확대를 위해 특별 휴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근무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주 내용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 ‘휴가’ 3일 신설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양자택일) ‘기념일 휴가’ 1일 신설 △자녀보육 휴가도 5세 이하에서 8



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변경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남원시는 이 내용을 담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사진)은 “이번 특별 휴가가 연차가 낮은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저출산 위기 시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공직사회가 매력적이고 일하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 도지사 기관 표창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에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환자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순창군은 올해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공공 ·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했으며, 682가구에 약 5억 9천만 원의 긴급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했다.

더불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금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권리구제에 힘쓰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유공 부문에서 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환자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순창군은 올해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공공 ·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했으며, 682가구에 약 5억 9천만 원의 긴급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했다.

더불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및 지정기탁금 연계를 통해 저소득층의 권리구제에 힘쓰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통



남원소방서,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강화 위한 간담회 가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2일, 남원의료원에서 남원시 보건소와 남원의료원 의료진과 전북형 119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남원소방서장, 보건소장, 남원의료원장,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등 16명의 의료진이 참석해 의료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전북형 119응급환자 이송 시스템을 이용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자 처치, 응급 환자 상급병원 분산 이송 시스템 개선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현 소방서장은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 훈련 실시

임실군이 지난 12일 119안전센터와 임실군청사 합동 소방 훈련을 군청 내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초기 진압 능력을 배양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자위소방대 초기 화재 진압 능력 제고 훈련, 화재 경보 발령 및 소방관서 119 신고 요령, 소방 훈련 상황별 대응 훈련, 중요문서 피난 방법,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계구축 등을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신규 주무관은 “훈련 덕분에, 위기 상황 시 몸이 기억해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합동 소방 훈련에 적극 동참 해주신 임실 119 안전센터 관계자분들과 군청 자위소방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훈련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 태세를 갖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